

요한계시록의 ‘전능하신 주 하나님’ 호칭의 구약 배경

김경식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부교수)

[초록]

본 논문은 요한계시록에 7번 사용되고 있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κύριος ὁ θεὸς ὁ παντοκράτωρ) 호칭의 구약 배경을 연구한다. 구약에 하나님 호칭은 수없이 많이 사용되지만, 계시록에 사용된 ‘전능하신 주 하나님’ 호칭은 특정하게 아모스서(LXX)에 사용되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 호칭’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아모스서(LXX)와 계시록 사이에 문자적 유사성이 명백하고, 빈도수로 보더라도 이 호칭이 다른 구약본문에는 1-2회 정도 사용되지만, 아모스서에서는 10회나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모스서(LXX)에서 이 호칭이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창조주, 심판주, 모든 만물의 통치자 되심, 그리고 우상에 대한 공격이라는 주제와 함께 사용된다. 흥미롭게도 계시록에서도 비슷한 문맥에서 이 호칭이 사용되는데, ‘셀 수 없는 많은 무리,’ ‘만국’이라는 단어가 함께 사용되거나, ‘통치’의 개념 혹은 ‘심판’의 개념이 함께 사용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계시록에 사용된 전능하신 주 하나님 호칭이 아모스서의 문맥과 주제를 그대로 계시록 본문으로 끌고 들어와 아모스서의 신학과 교훈을 연상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게 만든다.

계시록은 아모스서의 하나님 호칭을 사용하여, 아모스서의 주제인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진정한 예배의 대상임을 상기시키면서, 로마황제라는 우상이 예배대상이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예배의 대상임을 정교하게 드러낸다. 로마황제가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분이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이다. 계시록은 아모스서(LXX)의 하나님 호칭을 사용하면서 아모스서의 전체 문맥을 끝어다가 이 주제들을 연상시키며 신학적 권면을 표현하고 있다.

주제어

계시록의 아모스서 사용, 전능하신 주 하나님, 우상숭배 비판, 계시록의 하나님 호칭, 신약의 구약 문맥존중

1. 들어가는 말

이 논문은 요한계시록에 7번 사용되는 하나님 호칭인 ‘전능하신 주 하나님’(κύριος ὁ θεὸς ὁ παντοκράτωρ)의 구약 배경을 다룬다. 요한 계시록은 수많은 구약사용을 통해 소아시아 일곱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달한다.¹⁾ 구약사용을 빼놓고 계시록을 연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나 충분하지 못한 해석작업이 된다. 특히 구약 선지서 본문들이 계시록에 빈번히 사용된다는 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록에서 아모스 사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논문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 연구는 아모스서의 배경하에 계시록에 사용되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 호칭을 해석하면서 계시

* 이 논문은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의 연구비 지원을 통해 수행되었음.

1) 김추성, 『요한계시록 1-9장』, (서울: 킹덤북스, 2018), 65-66.

록 해석의 빈틈을 채워보려고 한다. 이 논문은 아모스서를 해석의 렌즈로 삼아 계시록의 ‘전능하신 주 하나님’ 호칭의 의미를 아모스서와의 관계에서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계시록에서 하나님을 일컫는 호칭들은 리처드 보컴이 제시하듯이 “알파와 오메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이,” “보좌에 앉으신 이” 그리고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 있다.²⁾ 이 외에 보컴이 언급하지 않은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4:9,10; 10:6; 15:7) 호칭도 있다. 이들 호칭 중에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은 문자적 유사성의 기준으로 볼 때 명확하게 아모스서에서 온 표현이다. 흥미롭게도 계시록에 나타나는 하나님 호칭을 다른 학자들보다 더 치밀하게 분석한 보컴도 “전능하신 주 하나님” 호칭에 관한 논의는 다른 논의에 비해 지나치게 간략하다.³⁾ 또한, 그는 이 하나님 호칭이 구약에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아모스서와의 연관성은 거의 간과하면서 구약 특히 선지서 여러 곳에서 사용되는 “주, 만군의 여호와”(the Lord, the God of hosts) 호칭이 개념적 배경이라고만 간략히 언급하고 지나가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⁴⁾

또한, 계시록에서의 소선지서 사용을 연구한 자우히아이넨(Marko Jauhiainen)은 계시록에 사용된 다양한 소선지서 본문을 분석하고 종합하는 값진 노력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논문은 아예 계시록의 아모스 사용 자체를 다루고 있지 않아 본 논문이 다루고자 하는 하나님 호칭과 관련해 충분한 통찰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⁵⁾ 또한, 계시록에서의 구약사용연구에서 아직도 그 위치를 점하

2) Richard Bauckham, *The Theology of The Book of Revel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23-35.

3) Bauckham, *The Theology of The Book of Revelation*, 30.

4) Bauckham, *The Theology of The Book of Revelation*, 30. 김추성 교수도 보컴과 비슷한 주장을 한다. 김추성, 『요한계시록 1-9장』, 136.

5) Marko Jauhiainen, “Minor Prophets in the Book of Revelation” in *Minor Prophets in the New Testament* (London: T&T Clark, 2009), 155-171.

고 있는 비일(G.K. Beale)도 그의 계시록 주석에서 아모스서 사용의 분석과 관련해 그렇다 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논의를 제공하지 못한다. 그의 아모스서 언급은 주로 계시록의 특정 구절을 주석할 때 참고구절 정도로 가볍게 언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다.⁶⁾ 비일의 아모스서 사용에 관한 논의는 계시록 10장 (특히 3절과 7절)에 국한된 것이 전부이다.⁷⁾ 그리고 그 논의도 한 단락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이다.

계시록에 사용된 ‘전능하신 주 하나님’ 호칭을 아모스서의 배경하에 연구하기 위해, 먼저 우리는 이 호칭이 과연 아모스서에서 온 호칭인지부터 증명하는 작업을 하려고 한다. 이후, 아모스서에 등장하는 이 호칭의 가지고 있는 신학적 의미를 아모스서의 문맥을 따라가며 분석 종합하고, 이를 근거로 계시록에 사용되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 호칭의 의미를 아모스서의 문맥과 신학의 렌즈로 해석하는 과정을 밝으려고 한다.

2. ‘전능하신 주 하나님’ 호칭의 구약 배경

가. 구약과 구약외경의 ‘전능하신 주 하나님’(κύριος ὁ θεὸς ὁ παντοκράτωρ)

계시록에 사용되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 호칭이 다른 구약 본문들이 아닌 아모스서의 호칭에 기반하고 있다는 근거는 무엇보다도 문자적 유사성과 빈도수에 근거한다. 구약 칠십인역에는 전능자(παντοκράτωρ), 혹은 κύριος가 생략된 어구인 ‘전능하신 하나님’(ὁ θεὸς ὁ παντοκράτωρ)이라는 호칭은 셀 수 없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⁶⁾ G. K. Beale, *The Book of Revelation*, NIGTC (Grand Rapids: Eerdmans, 1999), 153, 332, 466, 850, 923의 각주 253.

⁷⁾ Beale, *Revelation*, 533, 543.

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κύριος ὁ θεὸς ὁ παντοκράτωρ) 호칭은 구약성경(LXX)에서 총 18회만 사용된다.⁸⁾ 우선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라는 호칭, 혹은 어순은 다르지만 동일한 단어들이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결합된 하나님 호칭이 상대적으로 몇 안 되는 구약본문들에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사무엘하 7장의 다윗의 기도 장면에서 2번 사용(7:25,27)되고 있고, 역시나 평행본문으로 볼 수 있는 역대상 17:24에서도 사무엘하 7장과 같은 형태인 κύριε παντοκράτωρ θεὸς가 사용되고 있다. 계시록과 매우 흡사한 형태가 호세아 12:6에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에 보여준 불충스러운 모습을 언급하는 문맥에서 ὁ κύριος ὁ θεὸς ὁ παντοκράτωρ 형식으로 사용된다.⁹⁾ 맨 앞에 관사가 없는 형태인 κύριος ὁ θεὸς ὁ παντοκράτωρ가 소전지서의 두 본문(나훔 3:5, 스 10:3)에 사용되고 있고, 스가랴 12:5에서는 이 관사없는 어구의 변형된 형태가 전치사의 목적어구인 여격 형태(ἐν κυρίῳ παντοκράτορι θεῷ)로 사용된다.

구약 외경에서도 ‘전능하신 주 하나님’(κύριος ὁ θεὸς ὁ παντοκράτωρ)이라는 어구는 사용된다. ‘하나님,’ ‘전능하신 이,’ ‘주’라는 세 개의 단어가 함께 사용되는 구절은 유딧서 15:10, 마카비 3서 5:7 그리고 므낫세의 기도인 Odes 12:1 그리고 바룩서 3:1,4이다. 이 구절 가운데 유딧서 15:10과 마카비 3서 5:7은 계시록과는 달리 ‘하나님’ 단어와 ‘전능하신 이, 주’가 분리되어 나타나고 있다. 문자적 유사성과 어순을 놓고 볼 때 계시록과 가장 비슷한 어구는 Odes 12:1이다.¹⁰⁾

8) 구약 칠십인역 어구 분석과 통계는 논자가 Gramcord와 Bibleworks 9를 사용해 직접 조사했다.

9) cf. W. Edward Glenny, *Hosea: A Commentary based on Hosea in Codex Vaticanus* (Leiden: Brill, 2013), 161.

10) Odes 12는 New English Translation of the Septuagint에서 ‘므낫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구약 정경 시편의 부록으로 처리되고 있다. Albert Petersma and Benjamin G. Wright, *A New English Translation of the Septuagi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620.

하지만, Odes와 계시록의 하나님 호칭에 개념상의 차이점이 존재한다. 계시록의 ‘전능하신 주 하나님’ 호칭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반면에 Odes의 하나님 호칭 어구는 “우리 조상”의 전능하신 주 하나님(*κύριε παντοκράτωρ ὁ θεὸς τῶν πατέρων ἡμῶν*)이라고 표현되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계시록의 하나님 호칭의 개념과 차이가 있다.

구약성경과 구약외경을 놓고 볼 때, 계시록과 문자적으로 일치하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 어구는 아모스서(LXX)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아모스서의 이 하나님 호칭은 다음의 비교와 같이, 계시록과 문자적으로 유사할 뿐만 아니라, 어순도 정확하게 일치한다.

아모스서 (LXX)	계시록
3:13 ἀκούσατε καὶ ἐπιμαρτύρασθε τῷ οἴκῳ Ἰακωβ λέγει <u>κύριος ὁ θεὸς ὁ παντοκράτωρ</u>	1:8 Ἐγὼ εἶμι τὸ ἄλφα καὶ τὸ ὦ, λέγει <u>κύριος ὁ θεός</u> , ὁ ὢν καὶ ὁ ἦν καὶ ὁ ἐρχόμενος, <u>ὁ παντοκράτωρ</u> .
4:13 διότι ἰδοὺ ἐγὼ στερεῶν βροντὴν καὶ κτίζων πνεῦμα καὶ ἀπαγγέλλων εἰς ἀνθρώπους τὸν χριστὸν αὐτοῦ ποιῶν ὀρθρον καὶ ὁμίχλην καὶ ἐπιβαίνων ἐπὶ τὰ ὕψη τῆς γῆς <u>κύριος ὁ θεός ὁ παντοκράτωρ</u> ὄνομα αὐτοῦ	4:8 καὶ τὰ τέσσαρα ζῶα, ἐν καθ’ ἐν αὐτῶν ἔχων ἀνά πτέρυγας ἕξ, κυκλόθεν καὶ ἔσωθεν γέμουσιν ὀφθαλμῶν, καὶ ἀνάπauσιν οὐκ ἔχουσιν ἡμέρας καὶ νυκτὸς λέγοντες· ἅγιος ἅγιος ἅγιος <u>κύριος ὁ θεός ὁ παντοκράτωρ</u> , ὁ ἦν καὶ ὁ ὢν καὶ ὁ ἐρχόμενος.
5:8 ποιῶν πάντα καὶ μετασκευάζων καὶ ἐκτρέπων εἰς τὸ πρωὶ σκιάν θανάτου καὶ ἡμέραν εἰς νύκτα συσκοτάζων ὁ προσκαλούμενος τὸ ὕδωρ τῆς θαλάσσης καὶ ἐκχέων αὐτὸ ἐπὶ προσώπου τῆς γῆς <u>κύριος ὁ θεός ὁ παντοκράτωρ</u> ὄνομα αὐτοῦ	11:17 λέγοντες· εὐχαριστοῦμέν σοι, <u>κύριε ὁ θεός ὁ παντοκράτωρ</u> , ὁ ὢν καὶ ὁ ἦν, ὅτι εἰληφας τὴν δυνάμιν σου τὴν μεγάλην καὶ ἐβασίλευσας.
5:14 ἐκλήθησате τὸ καλὸν καὶ μὴ τὸ πονηρὸν ὅπως ζήσητε καὶ	15:3 καὶ ἄδουσιν τὴν ᾠδὴν Μωϋσέως τοῦ δούλου τοῦ θεοῦ καὶ τὴν ᾠδὴν τοῦ ἀρνίου λέγοντες· μεγάλα καὶ θαυμαστά

<p>ἔσται οὕτως μεθ' ὑμῶν <u>κύριος ὁ θεὸς ὁ παντοκράτωρ</u> ὃν τρόπον εἶπατε</p> <p>5:15 μεμισήκαμεν τὰ πονηρὰ καὶ ἠγαπήκαμεν τὰ καλὰ καὶ ἀποκαταστήσατε ἐν πύλαις κρίμα ὅπως ἐλέησῃ <u>κύριος ὁ θεὸς ὁ παντοκράτωρ</u> τοὺς περιλοίπους τοῦ Ἰωσηφ</p> <p>16 διὰ τοῦτο τάδε λέγει <u>κύριος ὁ θεὸς ὁ παντοκράτωρ</u> ἐν πάσαις πλατείαις κοπετός καὶ ἐν πάσαις ὁδοῖς ῥηθήσεται οὐαὶ οὐαὶ κληθήσεται γεωργὸς εἰς πένθος καὶ κοπετὸν καὶ εἰς εἰδότας θρῆνον</p> <p>5:27 καὶ μετοικιῶ ὑμᾶς ἐπέκεινα Δαμασκοῦ λέγει <u>κύριος ὁ θεὸς ὁ παντοκράτωρ</u> ὄνομα αὐτῶ</p> <p>9:6 ὁ οἰκοδομῶν εἰς τὸν οὐρανὸν ἀνάβασιν αὐτοῦ καὶ τὴν ἐπαγγελίαν αὐτοῦ ἐπὶ τῆς γῆς θεμελιῶν ὁ προσκαλούμενος τὸ ὕδωρ τῆς θαλάσσης καὶ ἐκχέων αὐτὸ ἐπὶ πρόσωπον τῆς γῆς <u>κύριος ὁ θεὸς ὁ παντοκράτωρ</u> ὄνομα αὐτῶ</p> <p>9:15 καὶ καταφυτεύσω αὐτοὺς ἐπὶ τῆς γῆς αὐτῶν καὶ οὐ μὴ ἐκσπασθῶσιν οὐκέτι ἀπὸ τῆς γῆς αὐτῶν ἧς ἔδωκα αὐτοῖς λέγει <u>κύριος ὁ θεὸς ὁ παντοκράτωρ</u></p>	<p>τὰ ἔργα σου, <u>κύριε ὁ θεὸς ὁ παντοκράτωρ</u>. δίκαιαι καὶ ἀληθιναὶ αἱ ὁδοὶ σου, ὁ βασιλεὺς τῶν ἐθνῶν.</p> <p>16:7 Καὶ ἤκουσα τοῦ θυσιαστηρίου λέγοντος· ναὶ <u>κύριε ὁ θεὸς ὁ παντοκράτωρ</u>, ἀληθινὰ καὶ δίκαιαι αἱ κρίσεις σου.</p> <p>19:6 Καὶ ἤκουσα ὡς φωνὴν ὄχλου πολλοῦ καὶ ὡς φωνὴν ὑδάτων πολλῶν καὶ ὡς φωνὴν βροντῶν ἰσχυρῶν λεγόντων· ἀλληλουϊά, ὅτι ἐβασίλευσεν <u>κύριος ὁ θεὸς</u> [ἡμῶν] <u>ὁ παντοκράτωρ</u>.</p> <p>21:22 Καὶ ναὸν οὐκ εἶδον ἐν αὐτῇ, <u>ὁ γὰρ κύριος ὁ θεὸς ὁ παντοκράτωρ</u> ναὸς αὐτῆς ἐστὶν καὶ τὸ ἄρνιον.</p>
---	---

계시록에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항상 κύριος ὁ θεὸς ὁ παντοκράτωρ의 단어 배열 순서로 사용되는데(계 1:8, 4:8, 11:17, 15:3, 16:7, 19:6, 21:22), 이 어순이 정확하게 아모스서에 나오는 어순과 일치한다. 또한, 관사의 유무를 기준으로 요한계시록의 하나님 호칭 어구 형식을 살펴보다도, 계시록 21:22을 제외하고는

κύριος 앞에 관사가 없는 형태이고, 뒤따라오는 두 명사인 θεός, παντοκράτωρ에는 관사가 있는 형태가 계시록에 사용되는데, 대다수가 아모스서의 하나님 호칭의 패턴과 일치한다.

게다가, 더 의미심장한 사실은 이 호칭의 빈도수를 놓고 볼 때, ‘전능하신 주 하나님’(κύριος ὁ θεός ὁ παντοκράτωρ) 호칭이 구약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책은 다름 아닌 아모스서(LXX)로, 모두 10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3:13; 4:13; 5:8,14,15,16,27; 9:5,6,15).¹¹⁾ 이에 비해, 계시록과 비슷한 하나님 호칭 어구가 사무엘하(LXX)에 2회(7:25,27), 역대상(LXX)에 1회(17:24), 호세아서(LXX)에 1회(12:6), 나훔서(LXX)에 1회(3:5), 학개서(LXX)에 1회(1:14), 그리고 스가랴서(LXX)에 2회(10:3, 12:5) 밖에 사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어구들 대다수가 계시록의 어구와 문자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물론 이 구약본문 중에서 계시록의 하나님 호칭인 κύριος ὁ θεός ὁ παντοκράτωρ와 정확한 문자적 유사성을 보여주는 구절이 호세아, 나훔, 스가랴서의 칠십인역 본문에 1회 씩(호12:6, 나3:5, 스10:3) 사용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 호칭이 아모스서(LXX)에 무려 10회나 사용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계시록과 아모스서 사이의 밀접한 문자적 유사성이 있다는 점은 계시록의 ‘전능하신 주 하나님’ 호칭이 아모스서(LXX)의 ‘전능하신 주 하나님’ 호칭을 가져다 사용했을 개연성을 높여준다.

나. 아모스서(LXX)에 사용된 ‘전능하신 주 하나님’ 호칭의 특징

칠십인역 아모스서의 ‘전능하신 주 하나님’ 호칭 사용은 아모스서

¹¹⁾ 요한계시록 저자인 요한이 구약본문을 사용하면서 참고한 저본(Vorlagen)에 대한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 Allen이 주장한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사용된 구약본문의 대다수가 헬라어 칠십인역(LXX)에서 온 것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히브리어 본문을 가져다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Garrick V. Allen, “Textual Pluriformity and Allusion in the Book of Revelation: the Text of Zechariah 4 in the Apocalypse,” ZNW 106, no 1 (2015), 144-145. 또한 김경식, 『구약을 품은 신약 본문 해석』(서울: 새물결플러스, 2020), 252-253. “전능하신 주 하나님” 호칭은 칠십인역 아모스서 본문과 문자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의 신론을 잘 반영하는 어구이다. 칠십인역 아모스서의 번역기법을 분석하면서 παντοκράτωρ의 용법을 연구한 글레니(Edward Glenny)의 관찰은 우리의 연구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그가 지적하듯이 이 παντοκράτωρ는 칠십인역 아모스서에서 이 단어 단독으로 사용되지 않고 항상 κύριος ὁ θεὸς ὁ παντοκράτωρ 어구 안에서 고정된 형태로 사용된다.¹²⁾ 그에 의하면 이 παντοκράτωρ는 칠십인역 소선지서에 110번 사용되는데 일관되게 πικρῶν을 번역할 때 사용되는 헬라어 단어이다.¹³⁾

하지만 글레니는 아모스서의 칠십인역에서 이 호칭의 독특한 점을 발견하는데, 아모스서의 칠십인역 번역자가 히브리어 원문에 헬라어 번역단어에 상응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나타나지 않은 없는 문장에도 부가적으로 παντοκράτωρ를 사용하면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κύριος ὁ θεὸς παντοκράτωρ) 어구를 세 번(5:8; 9:6,15) 더 추가한다는 점을 지적한다.¹⁴⁾ 이렇게 함으로써 칠십인역 아모스서의 헬라어 번역에 ‘전능하신 주 하나님’의 개념이 더 많이 부각되어 강조된다고 설명한다.

또한, 그는 구약 칠십인역(LXX)에 사용된 ‘전능하신 이’(παντοκράτωρ)의 용례를 연구한 도그니에즈(Cécile Dogniez)의 연구를 요약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아모스서에 사용된 “전능하신 이” 어구 개념을 설명한다. 첫째, 도그니에즈에 의하면 칠십인경 소선지서에 사용된 “전능하신 이” 호칭은 구약의 만군의 여호와라는 어구를 번역한 것으로 이 어구가 히브리어 구약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전사(warrior) 혹은 전쟁의 하나님으로 묘사하는데 사용된 반면에, 칠십인역 그리고 아모스서에 와서 전쟁의 하나님으로서의 개념이 약화되고, 그 대신

¹²⁾ Edward Glenny, *Finding Meaning in the Text: Translation Technique and Theology in the Septuagint of Amos*, (Leiden: Brill, 2009), 186. 각주 6.

¹³⁾ Glenny, *Finding Meaning*, 186.

¹⁴⁾ Glenny, *Finding Meaning*, 186-187.

에 모든 능력을 가진 주권자로서의 하나님의 특징이 더 강조되고 있다.¹⁵⁾ 도그니에즈에 의한 두 번째 특징은 전능하신 이라는 호칭이 칠십인역 아모스서에서 하나님의 창조사역을 설명하는데 두드러지게 사용된다는 점이다.¹⁶⁾ 마지막 세 번째로 칠십인경 아모스서 그리고 더 넓게는 칠십인경 소선지서에서 사용된 παντοκράτωρ를 통해 제시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통치자’라는 개념에 강조점이 있다는 사실이다.¹⁷⁾

글레니의 분석이나 그 이전의 도그니에즈의 연구가 παντοκράτωρ라는 한 개의 단어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관찰은 우리가 이 논문에서 분석하고 있는 계시록의 ‘전능하신 주 하나님’(κύριος ὁ θεὸς παντοκράτωρ) 호칭 연구를 위해 매우 유익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다. 아모스서(LXX)처럼 계시록이 παντοκράτωρ를 사용할 때는 항상 κύριος ὁ θεὸς παντοκράτωρ라는 고정된 형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 아모스서(LXX)의 문맥과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아모스서는 단지 ‘전능하신 주 하나님’(κύριος ὁ θεὸς παντοκράτωρ) 호칭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라는 점을 부각하지는 않는다. 사실은 아모스서 전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과 우주의 통치자라는 점을 드러낸다.¹⁸⁾ 아모스서는 전반부에서 유다(2:4-5)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의 죄악(2:6-16, 또한, 3-6장)을 지적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한다. 하지만 그 이전에 이스라엘 주위의 6개 이웃 나라들인 다메섹, 가사, 두로,

¹⁵⁾ Glenny, *Finding Meaning*, 187-88.

¹⁶⁾ Glenny, *Finding Meaning*, 188.

¹⁷⁾ Glenny, *Finding Meaning*, 188-89.

¹⁸⁾ Douglas Stuart, *Hosea-Jonah*, WBC 31 (Waco: Word, 1987), 289.

에돔, 암몬, 모압의 죄를 언급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이들에게도 임한다고 경고한다(1:3-2:3).¹⁹⁾ 다시 말해 아모스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방나라들도 통치하시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르지 않는 이방나라들도 예외없이 심판하신다고 가르친다. 특히 하나님이 이방나라의 통치권자들(1:8, 15; 2:5)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은 하나님이 온 세상의 궁극적인 통치자이심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대목들이다.²⁰⁾ 결국 심판의 범위라는 관점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만 통치하며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다.

아모스서 전체가 하나님의 온 세상의 통치자되심을 보여주지만, 이 개념을 가장 잘 요약하는 어구가 다른 아모서의 “전능하신 주 하나님”(κύριος ὁ θεὸς παντοκράτωρ) 호칭이다. 이 호칭은 칠십인역 아모스서(LXX)에서 10회에 걸쳐 사용된다. 계시록의 “전능하신 주 하나님” 호칭은 아모스서(LXX)와 문자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다음의 논의는 칠십인역 본문에 한정해, 이 호칭의 사용 문맥과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아모스 3:13, 4:13 (이스라엘과 자연만물의 통치자, 우상숭배와 심판)

아모스서(LXX)에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 호칭이 맨 처음 사용되는 본문은 아모스 3:13이다. 이 본문은 사마리아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본문이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말한다. 이스라엘에 임하는 하나님 심판의 이유는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다. 14절의 “뱀엘의 제단”(τὰ θυσιαστήρια Βαιθελ)이 우상숭배를 암시하기 때문이다(참고, 암 4:4, 5:5, 7:10).²¹⁾

¹⁹⁾ William J. Dumbrell, *The Faith of Israel: Its Expression in the Books of the Old Testament*, (Leister: Apollos, 1989), 157-58.

²⁰⁾ Stuart, *Hosea-Jonah*, 290.

아모스서에서 두 번째로 전능하신 주 하나님 호칭이 사용되는 본문은 4:13인데, 이 구절은 아모스서에 등장하는 네 개의 찬송 가운데 하나로, 이스라엘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하나님이 자연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면서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심판자라고 묘사한다.²²⁾ 첫 번째 본문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면, 두 번째 본문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자연창조와 관련지어 설명하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분이 세상의 창조주시고 심판자라는 개념을 덧붙인다. 아모스서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자연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다.

아모스 3:13과 4:13에 사용된 전능하신 주 하나님 호칭은 일종에 *inclusio*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 두 호칭 사이의 본문에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내용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καὶ οὐκ ἐπεστρέψατε πρὸς με)는 우상숭배에 빠져 회개를 거부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책망이다(4:6, 8, 9, 10, 11).²³⁾ 이 비판은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12절이 결과를 의미하는 ‘그러므로’(διὰ τοῦτο)라는 어구로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하고 때문이다.

(2) 아모스 5:8 (우상과 다른 만물의 창조주)

아모스 5장은 5회에 걸쳐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 호칭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다(5:8,14,15,16,27). 이미 앞선 논의에서 언급했지만, 칠십인역 아모스서(LXX)에는 히브리어 아모스서 본문(HB)에 사용되지 않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 호칭’이 더 첨가된 본문이 세 군데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아모스서 5:8이다. 이 구절(5:8-9)은 아모스

²¹⁾ Stuart, *Hosea-Jonah*, 331.

²²⁾ 반 계메넨, 『예언서 연구』, 김의원 외 역 (서울: 엠마오, 1990), 225. 아모스서에 나오는 네 개의 찬송은 1:2, 4:13, 5:8-9 그리고 9:5-6이다.

²³⁾ Stuart, *Hosea-Jonah*, 338. J. L. Crenshaw, “YHWH Sebot Semo: A Form-Critical Analysis,”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81 no 2 (1969): 161.

서에 등장하는 네 개의 찬송 가운데 세 번째 찬송이다.²⁴⁾ 특히 ‘전능하신 주 하나님’ 호칭이 문맥상 하나님의 창조사역과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사용되어 하나님을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며 주권을 행하시는 분으로 묘사한다.²⁵⁾ 아모스 5장 8절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창조주시면서, 무소불위의 능력을 행하시는 분으로 묘사된다. 아모스서의 칠십인역 번역자는 창조주와 전능하신 분으로서의 하나님을 묘사하기에 사용된 히브리어 아모스 본문의 “그의 이름이 여호와”(יהוה יהיה)라는 히브리어 표현보다는 κύριος ὁ θεὸς παντοκράτωρ가 가장 적절한 하나님 호칭이라고 판단해 이 헬라이어 표현을 번역과정에서 아모스서 번역에 첨가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문맥에서 주목해 볼 부분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찾으라”(8절)는 권면이다. 이 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 있는 우상숭배를 염두에 둔 권면이다.²⁶⁾ 이스라엘이 섬기는 우상들(5:26, 8:14)은 거짓 신이며,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된 예배의 대상이라는 신학이 하나님을 찾으라(8절)는 권면에 암시되어 있다. 이스라엘이 만든 신들의 별 형상(5:26)은 거짓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별들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이다(5:8). 글레니(Glenny)에 의하면 아모스서가 칠십인역으로 번역될 당시에 이 구절(5:8-9)은 당시 신들이었던 헤르메스, 제우스, 바알 그리고 기타 다른 신들에 대한 암묵적 공격을 내포하고 있다.²⁷⁾

(3) 아모스 5:14-16 (무능한 우상과 달리, 심판과 구원으로 다스리시는 예배의 진정한 대상)

아모스(LXX) 5:14-16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 호칭이 연속해서 각

24) 반 게메렌, 『예언서 연구』, 225.

25) W. Edward Glenny, *Amos: A Commentary based on Amos in Codex Vaticanus. Septuagint Commentary Series*, (Leiden: Brill, 2013), 87.

26) cf. J. L. Crenshaw, “YHWH Sebat Semo: A Form-Critical Analysis,” 163.

27) Glenny, *Amos*, 87.

절마다 1회씩 총 3번 반복되어 사용되는 본문이다. 14-15절은 16절과 내용상 구원과 심판의 내용으로 대조를 보인다. 14-15절에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분으로 묘사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야 한다(14절). 문맥상 “선을 구하는 것”(암 5:14)은 “하나님을 찾는 것”(암 5:4,6)과 같은 의미로 예배와 윤리가 따로 분리될 수 없음을 암시한다.²⁸⁾ 다시 말해, 우상숭배와 이로 인한 삶의 타락이 맞물려 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지면 아모스서에 설명되는 언약이 요구하는 것과 대조되는 비도덕적 삶을 살게 된다.²⁹⁾ 아모스서에서 우상숭배와 함께 도덕적 타락이 자주 언급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선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것은 거의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아모스서 5:14,15와 같이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또한 15절도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리라”고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남은 자’ 즉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분으로 제시된다. 아모스서는 단지 이스라엘에게 심판만을 선언하지 않고, 회개할 경우 “요셉의 남은 자”(15절)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소망도 함께 선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³⁰⁾ 그리고 이런 구원의 문맥에서 하나님을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해 아모스(LXX)서는 하나님이 심판을 구원으로 바꿀 수 있는 전능한 분이심을 분명하게 제시한다.

16절은 다시 심판의 내용으로 돌아온다. 특히나 ‘모든’(πάσαις)이라는 형용사를 사용해 “모든” 광장, “모든” 거리, “모든” 포도원에서 애곡과 슬픔이 있다고 설명하여 이 심판의 범위가 이스라엘 민족 전

²⁸⁾ James L. Mays, *Amos* (London: SCM, 1969), 100.

²⁹⁾ Stuart, *Hosea-Jonah*, 292.

³⁰⁾ Daniel J. Simundson, *Hosea Joel Amos Obadiah Jonah Micah: Minor Prophets* (Nashville: Abingdon, 2005), 198.

체에게 임하는 것임을 강조한다.³¹⁾ 결국 16절에 사용된 “전능하신 주 하나님” 호칭을 통해 아모스서가 전달하려는 내용은 하나님은 모든 악인들까지도 다스리며 심판하는 분이라는 점이다. 결국, 아모스 (LXX) 5:14-16에 사용된 “전능하신 주 하나님” 호칭은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 전부를 대상으로 구원과 심판까지 통제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 게다가, 보다 중요한 내용은 우상과 달리 하나님만이 만물의 통치자로 그 어떤 신도 하나님과 견줄 수는 참된 예배의 대상이라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4) 아모스 5:25-27 (무능한 우상과 대조되는 유일하신 전능자)

아모스서 5장에서 마지막으로 전능하신 주 하나님 호칭이 사용되는 대목은 25-27절이다. 이 구절은 더 넓은 문맥인 5:18-27에 속해 있는 본문으로 “여호와와 의 날”에 임할 심판을 설명하는 맥락에서 사용된다.³²⁾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불의한 삶’과 ‘우상숭배’가 이스라엘에게 임할 심판의 이유임을 명시하고 있다. 25-26절은 우상숭배의 죄를 지적한다. 이 우상숭배의 죄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시기에 행하던 죄이다. 그리고 이 과거 우상의 죄는 아모스서를 받는 당시 이스라엘백성들에게도 적용되는 전형적인 죄이다.³³⁾ 과거 광야에서의 우상숭배(26절) 때문에 앞으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는(27절) 심판을 받는다고 하여 과거 이스라엘의 광야시대 우상숭배와 현재 이스라엘의 심판이 긴밀하게 관련되어 설명되고 있기 때문이다.³⁴⁾ 이스라엘은 제사 형식 자체가 이스라엘과 하

31) cf. Glenny, *Amos*, 101.

32) Stuart, *Hosea-Jonah*, 351-352.

33) Glenny, *Amos*, 109.

34) Hans M. Barstad, *The Religious Polemics of Amos Studies in the Preaching of Am 2, 7B-8; 4,1-13; 5,1-27; 6,4-7; 8:14* (Leiden: Brill, 1984), 121. Barstad가 지적하듯이 히브리어 아모스서(HB) 5:26의 동사 “지고 가리라”가 어느 시점(미래, 현재, 과거)을 가리키는지의 논란이 있다. 하지만, 헬라어 아모스서 (LXX) 5:26은 이 동사를 부정과거시제 ἀνελάβετο로 번역하고 있으며, 문맥상 이스라엘의 과거 광야시대

나눔과의 관계를 지탱하는 수단으로 착각했다(참고 암 5:21-22).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형식은 있었지만, ‘몰록’(Μολοχ)과 ‘라이판’(Ραιφαν) 즉 “자기들을 위해 만든 우상신들의 형상”(τοὺς τύπους αὐτῶν οὓς ἐποιήσατε ἑαυτοῖς)을 섬기며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우상숭배와 혼합해 버렸다. 따라서 27절은 25-26절에 설명된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의 결과로 “다메섹 너머”(ἐπέκεινα Δαμασκού)의 지역으로 옮겨지는 포로생활이라는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임할 것이라고 선언한다.³⁵⁾ 이 심판을 선언하는 대목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라고 소개되며, 이 심판을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설명한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하나님 호칭이 사용되는 이 문맥에서도 하나님은 우상과 대조되는 유일하신 참신으로 설명된다. 이 구절의 히브리어 본문상의 불명확성 때문에, “숙곳과 기윤”이라 호칭되는 우상들의 정확한 원래명칭과 의미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분명한 부분은 ‘별’과 관련된 우상숭배가 아모스 당시에 있었음을 암시한다.³⁶⁾ 하나님은 우상과 비교되는 신들 가운데 한 분이 아니다. 우상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해”(26절) 만든 신, 즉 인간의 제작품에 불과하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자연세계를 창조하셨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나라들까지도 통치하시는 분이기에, 어느 지역에만 국한된 지역 신이 아니다. 우상들은 자기들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는 심판으로부터 구하지도 못하는 무력한 신이다(26-27절). 반면에 하나님은 이 우상들도 벌하시는 분이시다. 아모스 5:25-27에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에 범한 우상숭배라고 표현한다.

³⁵⁾ 히브리어 아모스서(HB)는 “다메섹 너머”로 잡혀가는 것이라는 표현을 통해 앗수르에서의 포로생활을 의미한다(Stuart, *Hosea-Jonah*, 356). 하지만, 이 본문의 칠십인경 아모스서(LXX)를 읽는 독자들은 이 포로생활을 바벨론 유수로 이해했을 것이다(Glenny, *Amos: A Commentary*, 109).

³⁶⁾ Barstad, *The Religious Polemics of Amos*, 126. 특히 p 120-26 참고.

이 바로 이점이다.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는 분은 다름 아닌 무력한 지역신이 아닌,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그의 이름(*ὄνομα αὐτῷ/ ἱησῴ*)이라고 아모스는 강조한다(암5:27).

(5) 아모스 9:5-6 (하나님의 창조사역과 모든 피조물을 향한 능력)

아모스서 9장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3회에 걸쳐 사용한다. 9장에서 특이한 점은 히브리어 본문에는 사용되지 않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 호칭을 칠십인역은 번역과정에서 두 번이나 첨가하고 있다는 점이다(9:6,15).³⁷⁾ 아모스 9장 5-6절은 앞에서 다룬 아모스서의 여러 구약본문들과 유사하게 하나님의 창조사역과 모든 피조물 위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묘사하는 찬양이다.³⁸⁾ 5절은 하나님의 ‘땅’과 ‘강’에 대한 통치와 이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한다. 그리고 6절은 ‘땅’과 ‘강’뿐만 아니라 ‘하늘’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한다.

또한, 더 큰 문맥에서 아모스 9:5-6은 바로 앞에 언급되는 하나님이 죄인들이 어디에 있든지 ‘심판’하시는 분이라 묘사하는 맥락에 위치해 있다. 이런 관계는 하나님의 창조주되심과 하늘과 땅에 행하시는 그의 능력이 결국 ‘심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하나님의 주권이 ‘스올과 하늘’(9:2), ‘갈멜산 꼭대기와 바다 밑’(3절)으로 표현되는 온 세상을 대상으로 하는 통치를 통해 드러난다고 설명하는 맥락이다. 히브리어 아모스 9장 5절의 첫 부분과 6절의 맨 마지막 부분이 “하나님”호칭으로 수미쌍관법(*inclusio*)을 이룬다. 같은 본문의 칠십인역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히브리어 본문 6절에는 없는 하나님 호칭을 덧붙여 더 명확하게 “전능하신 주 하나님”(κύριος ὁ θεὸς ὁ παντοκράτωρ) 호칭이 두 구절을 수미쌍관법으로 둘

37) Glenn, *Amos*, 186.

38) Mays, *Amos*, 155. Stuart, *Hosea-Jonah*, 392.

러싸고 있다. 결국 5-6절이 두드러지게 부각시키는 초점은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만 통치하시는 지역신이 아니라, 이방나라(9:7,12,15)와 온 피조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다.³⁹⁾ 특히나 9:1에 언급된 ‘제단’이 벤엘의 제단을 지칭하고 이것과 연관된 북이스라엘의 종교혼합주의를 가리킨다.⁴⁰⁾ 따라서 문맥에서 9:5-6의 하나님 호칭도 결국은 우상숭배에 대한 공격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6) 아모스 9:15 (종말에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모스에서 맨 마지막으로 “전능하신 주 하나님” 호칭이 사용되는 구절은 흥미롭게도 아모스서의 맨 마지막 구절인 9장 15절이다. 이 구절이 의미 있는 것은 히브리어 본문에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יְהוָה אֱלֹהֶיךָ)라고 된 어구를 헬라어로 번역한 칠십인역 본문에서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κύριος ὁ θεὸς ὁ παντοκράτωρ)으로 번역하여 ὁ παντοκράτωρ를 첨가하기 때문이다. 아모스 9장 15절은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에 있을 구원의 소망을 다루는 아모스 9장 7-15절 안에 위치하고 있다. 9장 7-10절까지 이방나라들을 심판하시면서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 몇몇의 구원받을 자를 남겨두시겠다는 약속을 한 후, 11-15절에서 다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운다고 하는 유다 자손의 회복을 언급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에서는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의 구원을 약속한다.⁴¹⁾ 다시 15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약속하며 이 약속을 하신 분이

39) Glenny, *Amos*, 153.

40) Thomas Edward McComiskey, *The Minor Prophets: An Exegetical and Expository Commentary, Vol 1 Hosea, Joel and Amos* (Grand Rapids: Baker, 1992), 479. cf. Crenshaw는 문맥상 이 하나님 호칭을 8:14와 연관지어 우상숭배와 관련있다고 해석한다. Crenshaw, “YHWH Sebot Semo: A Form-Critical Analysis,” 163.

41) 이 표현은 사도행전 15장 16-18절에서 이방인들의 구원으로 해석되고 있으므로, 우리는 이 구절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예언하는 내용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참고, 행 15:19).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아모스서는 끝난다. 아모스서 맨 마지막 구절인 15절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방나라들을 다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7) 종합: 아모스서의 ‘전능하신 주 하나님’

요약하면, 지금까지 분석하며 살펴왔듯이 아모스서가 설명하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지역신이 아니라 이방나라들을 통치하시는 분이다. 또한 그는 자연과 우주를 만드신 분으로 창조하신 대상을 통치하시며 이 통치를 심판과 구원의 방식으로 실현해 가신다. 그리고 모든 인간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아모스서의 신학은 또한 우상들에 대한 공격과 비판의 성격이 농후하다. 다시 말해, ‘자기를 위해 만든 신들’은 무능하여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라는 신학적 의미를 아모스서의 전능하신 주 하나님 호칭이 내포하고 있다. 칠십인역 아모스서의 신론을 연구한 글레니는 “전능하신 이”(παντοκράτωρ)라는 호칭이 하나님의 창조사역, 그의 우주적 통치, 그리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하나님되심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⁴²⁾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아모스서의 ‘전능하신 주 하나님’ 호칭은 무엇보다도 우상들에 대한 비판과 공격이며 하나님만이 참된 예배의 대상이라는 점을 천명하고 있으면서, 아모스 당시 있었던 종교혼합주의 형태의 예배를 비판하는 의도가 있다.⁴³⁾ 계시록에서 아모스서의 ‘전능하신 주 하나님’ 호칭을 가져다 사용하면서 이 의미를 그대로 계시

42) Glenny, *Finding Meaning*, 71. 그는 “전능하신 이”라는 호칭이 하나님의 창조사역, 그의 우주적 통치, 그리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하나님되심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필자는 이 호칭이 한걸음 더 나가 우상들에 대한 공격이며 하나님만이 참된 예배의 대상이라는 점을 표현하며, 아모스 당시 있었던 종교혼합주의 형태의 예배를 비판하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

43) 아모스서에 나타난 우상에 대한 공격과 비판을 다룬 연구에는 Barstad, *The Religious Polemics of Amos*가 있다. 또한, Stuart, *Hosea-Jonah*, 292-93.

록에 투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계시록에서의 하나님 호칭을 분석하며 더 명확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3. 계시록에서의 ‘전능하신 주 하나님’

계시록에서 아모스서의 “전능하신 주 하나님” 호칭을 가져와 사용하는 본문은 모두 7개이다(1:8, 4:8, 11:17, 15:3, 16:7, 19:6, 21:22). 우리는 여기에서 이 본문들이 아모스서에 나오는 하나님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고, 이 호칭을 가져다 사용하며 전달하고자 했던 계시록의 신학적 의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가. 계시록 1:8 (계시록 서두)

이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서론부로 하나님이 직접 1인칭으로 말씀하시는 대목이다. 이 구절의 하나님 호칭은 정확히 아모스(LXX)에 총 10회 사용되는 하나님 호칭인 “전능하신 주 하나님”(κύριος ὁ θεὸς ὁ παντοκράτωρ)과 문자적 유사성을 보일 뿐 아니라, 심지어 어순까지 일치한다.⁴⁴⁾ 문자적 유사성 이외에 이 구절이 아모스서의 하나님 호칭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또 다른 근거는 주제적 유사성으로 바로 앞 구절인 7절에 있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πᾶσαι αἱ φυλαὶ τῆς γῆς)이 애곡하는 내용이다. 7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설명하는

⁴⁴⁾ Craig Koester는 여기에 사용된 παντοκράτωρ가 히브리어 ‘세바오트’(sebaot)를 번역한 단어라고 언급하면서 아모스서 3:13을 참고 구절 중 하나 정도로만 간주한다. Craig R. Koester, *Revela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4), 220. 계시록의 구약사용을 다루는 주석도 이 구절에서 아모스서가 직접적 배경이라고 보지 않고, 선지서들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의 전형적 패턴으로 간주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는 어구라고 치부한다. G. K. Beale & D. A. Carson,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Use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Baker, 2007), 1091.

대목으로 그가 이 땅에 오실 때 사람들이 보일 반응까지 언급하고 있다. 사람들이 보일 반응이 회개의 애통인지 아니면 심판으로 생긴 애통인지 논란이 있다.⁴⁵⁾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애통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παῖσαι αἱ φυλαὶ τῆς γῆς)이라는 점이다. 이미 앞서 살펴본 대로 아모스서는 하나님께서 단지 이스라엘만의 지역 신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유사하게 계시록에서도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라는 포괄적 언어가 예수의 재림 때에 애통하는 대상들을 지칭하고 있다.⁴⁶⁾ 그리고 이어지는 8절은 하나님을 묘사하면서 다시 한번 아모스서의 하나님 호칭에 기댄다. 이를 통해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단지 특정 지역과 민족을 다스리시는 지엽적인 신이 아니라 모든 사람(“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통치하시는 분이며, 이 통치를 구원과 심판의 방식으로 행사하실 것이라고 암시하고 있다.

나. 계시록 4:8 (하늘보좌 환상)

계시록 4장과 5장은 하늘보좌 환상을 기록하고 있는 한 장면이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4장에서 집중해서 묘사하고, 5장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넘겨받으시는 어린양 예수께서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4-5장은 장소 면에서 둘 다 하늘 어전에서 벌어지는 장면을 다루고 있고, 등장하는 주체들도 4장에 나오는 네 생물과 24 장로가 그대로 5장에 등장하고 있어 4-5장은 하나의 문맥단위로 볼 수 있다.⁴⁷⁾ 4장의 하나님 호칭을 다루면서 5장을 함께 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

아모스서에서 온 하나님의 호칭 “전능하신 주 하나님” 어구는 4:8

45) Grant Osborne, *Revelation*, BECNT, (Grand Rapids: Baker, 2002), 68-69.

46) Beale, *The Book of Revelation*, 197.

47) 김추성,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 (경기: 이레서원, 2015), 141. 도현석, “요한계시록의 하나님: - ‘이제에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보좌 위에 앉으신 이’ 두 칭호의 상호 관계성,” 『신약논단』 23권 2호 (2016), 535.

에서 네 생물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사용되고 있다. 아모스서에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 호칭이 대부분 찬양본문에 사용되는 것과 패턴이 유사하다. 네 생물의 찬양은 이사야 6:3에서 온 표현과 아모스서의 하나님 호칭을 결합한 형태로 표현된다. 찬양의 첫 부분인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ἅγιος ἅγιος ἅγιος)는 표현은 정확히 이사야 6:3(LXX)에 기반을 둔 표현이다.⁴⁸⁾ 계시록 4:8이 이사야 6장에서 온 이미지들을 사용한다는 근거는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여섯날개의 스랍이 계시록의 여섯 날개를 가진 네 생물을 묘사하는데 그대로 사용된다는 점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⁴⁹⁾ 그러나 이어지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어구는 이사야 6:3의 표현을 가져다 사용하지 않고 아모스서의 하나님 호칭을 사용한다. 이사야에서 하나님 호칭은 “만군의 주”(κύριος σαβαωθ)이다. 하지만 계시록에서는 이 호칭 대신 아모스서의 “전능하신 주 하나님”(κύριος ὁ θεὸς ὁ παντοκράτωρ) 호칭을 그대로 사용한다.⁵⁰⁾ 다시 말해 하나님 호칭을 사용하면서 의도적으로 이사야서의 호칭이 아닌 아모스서의 호칭을 가져다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계시록 4장 하나님의 보좌 환상의 찬양부분에서 아모스서의 ‘전능하신 주 하나님’ 어구를 사용한 이유는 무엇일까? 아모스서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며 따라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점이 강조되었고, 이 점을 부각하는 이유는 아모스 시대에 있었던 종교혼합주의적 요소 즉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예배하고 섬기는 거짓 예배를 배격하기 위함이었다.

⁴⁸⁾ Osborne, *Revelation*, 236-37. Beale,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Use of the Old Testament*, 1100.

⁴⁹⁾ Robert H. Mounce, *The Book of Revelation*, Revised Edition (Grand Rapids: Eerdmans, 1997), 125. Beale, *The Book of Revelation*, 328.

⁵⁰⁾ 대다수의 주석들이 이사야 6장을 계시록 4:8의 배경으로 보면서도, 아모스서의 하나님 호칭과의 연관성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Beale,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Use of the Old Testament*, 1100. Koester, *Revelation*, 364.

흥미롭게도 계시록 4장은 아모스서에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 호칭과 연관되어 다루고 있는 이같은 내용(창조, 통치, 예배, 우상배격)이 전부 등장한다. 먼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4:11은 하나님의 만물 창조사역(“주께서 만물을 만드신지라”)과 창조된 세상을 지탱하고 계심(“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을 설명한다.⁵¹⁾ 둘째, 통치 개념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보좌에 앉으신 이’(4:2,9,10), 혹은 단지 ‘앉으신 이’라도 설명되기도 한다(4:3). 계시록 4장에서 하나님의 ‘보좌’는 정치적 이미지로 하나님의 통치자 되심을 응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다.⁵²⁾ 동시에 로마황제숭배를 연상시키는 다양한 표현들을 통해 로마황제의 주장에 대항하여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만이 참된 예배의 대상임을 천명한다. ‘장로’라는 용어도 정치적 이미지와 연관이 있으며, 24장로에서 24라는 숫자는 도미티안 황제의 주위에 있는 24명의 하급관리(*lictores*)를 연상시키는 숫자이다.⁵³⁾ 게다가 4:8,11에서 하나님께 사용되는 호칭 중 ‘주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도미티안 황제가 자신을 호칭하면서 사용하려고 한 명칭(*Dominus et Deus*)을 연상시킨다.⁵⁴⁾ 요한계시록은 로마황제와 관련있는 호칭을 사용하고, 로마황제의 통치를 연상시키는 다른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결국 로마황제가 아니라 하늘보좌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명백하게 드러낸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계시록 4-5장은 예배의 개념이 풍부하다. 4장에서 하나님은 이십사장로와 네생물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수 많은 천사들(11절)로부터 찬양과 예배를 받으신다. “경배하다”는 동사가 두 번 사용

51) Osborne, *Revelation*, 242. Beale, *Revelation*, 335.

52) Bauckham, *The Theology of The Book of Revelation*, 31, 34.

53) David Aune, *Revelation 1-5*, WBC 52A, (Dallas: Word, 1997), 292. Osborne, *Revelation*, 240.

54) M. Eugene Boring, *Revelation* (Louisville: John Knox, 1989), 103. 물론 Koester는 이 호칭이 도미티안 황제만을 지칭하는데 사용된 것은 아니고, 도미티안 이전부터 로마황제들을 지칭하면서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Koester, *Revelation*, 365-366.

되고 있으며(4:10; 5:14), 24장로와 네 생물이 이 경배의 행동을 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또한 4-5장에 등장하는 찬양들(4:8,11; 5:9-10, 12, 13)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두루마리를 여실 수 있는 어린양만이 경배의 대상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계시록 4-5장에서 하나님과 어린양을 찬양하는 주체들은 네 생물(4:8-9), 24장로(4:10), 수많은 천사들(5:11) 그리고 의미심장하게 “하늘 위에 와, 땅 위에 와, 땅 아래 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5:13)이다. 원심원을 그리듯 보좌와 근접한 네 생물에서 시작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과 어린양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계시록 4-5장은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런 구조는 하나님과 어린양이 ‘온 세상’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대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⁵⁵⁾

결국, 아모스서에서 가져온 하나님 호칭인 ‘전능하신 주 하나님’(계4:8)은 계시록 4:8에서 아모스서의 문맥을 연상시키면서 하나님은 지역적인 신이 아니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점을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무엇보다, 아모스서의 ‘전능하신 주 하나님’ 호칭은 계시록 4장에 들어와서 우상숭배에 대한 배격과 하나님만을 찾으라는 권면(암5:4-8)을 연상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계시록은 로마제국의 다신론과 황제숭배 요구에 맞서서 로마황제를 포함한 그 어떤 것도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만이 예배의 유일한 대상임을 주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다. 계시록 11:17(일곱째 나팔 재앙)

일곱째 나팔재앙을 다루고 있는 11:15-19는 최후심판을 그 내용으로 한다. 15절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

⁵⁵⁾ Elisabeth Schüssler Fiorenza, *Revelation: Vision of a Just World* (Edinburgh: T&T Clark, 1991), 58.

상태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17절에 하나님의 호칭 가운데 ‘장차 오실 이’라는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은 일곱째 나팔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고, 따라서 세상 끝날이 도래했음을 보여준다.⁵⁶⁾

특히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 호칭은 이십사 장로들이 그들의 보좌에서 내려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드리는 찬양(17-18)의 문맥에 사용되고 있다. 아모스서에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 호칭이 찬양의 문맥에서 사용되었던 것과 같이, 계시록에서도 찬양의 문맥에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 호칭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은 아모스서의 문맥뿐만 아니라 아모스서에서의 이 호칭의 기능까지도 고려하며 계시록이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모스서의 하나님 호칭이 계시록 11:17에서도 사용된다고 보는 이유는 아모스서와의 문자적 유사성(κύριος ὁ θεὸς ὁ παντοκράτωρ)뿐만 아니라 주제적 유사성이 또한 있기 때문이다.⁵⁷⁾ 아모스서의 하나님 호칭이 사용되는 17,18절의 찬양은 하나님께서 “큰 권능을 가지시고 왕노릇”(ὅτι εἰληφας τὴν δυνάμιν σου τὴν μεγάλην καὶ ἐβασίλευσας) 하신다고 설명하여 하나님의 통치자 되심을 주제로 삼고 있다. 찬양의 내용이 대다수가 부정과거 시제를 사용한 반면에, 하나님이 큰 권능을 “잡으시는”(εἰληφας) 상태는 문맥상 가장 두드러지게 하는 기능(frontgrounding)을 하는 완료시제 동사가 사용되어, 하나님께서 큰 권능을 ‘잡으시는’ 상태가 강조되고 있다.⁵⁸⁾ 하나님이 찬양을 받

⁵⁶⁾ Bauckham, *The Theology of The Book of Revelation*, 29.

⁵⁷⁾ Beale과 Carson의 주석은 신약에서의 구약사용이라는 관점으로 신약본문을 주석하는데, 흥미롭게도 계 11:17에서 구약사용의 흔적을 발견해 내지 못하고 있다. Beale,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Use of the Old Testament*, 1122. Koester도 그의 주석에서 이 구절에 사용된 ‘전능하신 이’ 호칭을 설명하면서 단순히 이 어구가 하나님의 통치능력을 의미한다고만 설명한다. Koester, *Revelation*, 515.

⁵⁸⁾ cf. David L. Matthewson, *Verbal Aspect in the Book of Revelation: the Function of Greek Verb Tenses in John's Apocalypse* (Leiden: Brill, 2010), 126. 헬라이어 Verbal Aspect Theory에 의하면 완료시제는 ‘상태상’(Stative aspect)로, 문맥에서

으시는 이유는 17절뿐만 아니라 이미 15절에 제시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권자 되심에 있다. 세상나라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영원토록 왕노릇하시기(καὶ βασιλεύσει εἰς τοὺς αἰῶνας τῶν αἰώνων) 때문에, 이십사 장로가 하나님께 경배한다(16절). 아모스서의 하나님 호칭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세상을 향한 통치권과 관련이 있는 것과 유사하다.

더 나아가, 아모스서의 하나님 호칭과 관련해 계시록 11장과 의미 있는 연관성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11:15 κόσμος)이라는 대상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계시록에 3번 사용되는데, 다른 두 본문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대상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다(13:8, 17:8). 따라서 11:15의 ‘세상’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하나님의 통치권은 지엽적이고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온 ‘세상’(κόσμος)을 대상으로 하신다. 아모스서가 보여주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온 세상의 통치자 되심을 계시록이 여기서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18절은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 “심판하다”(κριθῆναι) “상 주다”(δοῦναι τὸν μισθόν) “멸망시키다”(διαφθεῖραι)라는 부정과거 부정사 3개를 사용해 상과 벌을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심판을 설명한다. 18절은 17절에 언급된 하나님의 통치가 표현되는 방식을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상을 주시고, 동시에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심으로 자신의 왕되심을 드러내신다.

아모스서의 하나님 호칭의 계시록 11장에서의 사용과 관련해 놓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내용은 심판의 대상이다. 18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방들”이 분노하니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고, ‘종 선지자들, 성도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또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신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자기 백성(18절,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만을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방인들’(τὰ ἔθνη)도 통치하시고 그들의 행동에 맞게 심판하시는 분이다.⁵⁹⁾ 결국 “전능하신 주 하나님”(11:17)은 아모스서의 문맥처럼 온 ‘세상’(11:15, *κόσμος*)을 통치하면서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이방인들도 심판하시는 분이다. 아모스서의 ‘전능하신 주 하나님’ 호칭이 전달하는 주제인 ‘하나님의 온 세상의 통치권’과 ‘심판’의 주제가 계시록의 이 본문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동시에 계시록 11장은 로마황제 숭배의식이라는 우상숭배에 빠진 자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18절)와 더불어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임(16절)을 아모스서의 하나님 호칭을 사용해 다시 한번 천명하고 있다.

라. 계시록 15:3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

아모스서의 ‘전능하신 주 하나님’ 호칭이 네 번째로 사용되는 계시록 본문은 15:3이다. 이 본문은 “바다가에 서서”라는 어구 그리고 “모세의 노래”라는 어구가 연상시키는 출애굽 이미지를 사용해 세상 끝날에 최종 승리를 경험할 성도의 상태를 묘사하는 대목이다.⁶⁰⁾ 모세의 노래, 즉 어린양의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 사용하는 호칭은 아모스서에서 온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다. 여기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아모스서와 관련이 있다. 아모스서와의 연관성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κύριος ὁ θεὸς ὁ παντοκράτωρ) 어구와의 문자적 유사성과 더불어, 계시록 15장의 이 찬송에서 반복

59) Osborne, *Revelation*, 445. Osborne은 여기에 언급된 이방에 대한 심판을 구약선지서에 자주 언급되는 열방의 심판 주제를 확대한 내용이라고 보고 있다.

60) Schüssler Fiorenza, *Revelation*, 92. Beale,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Use of the Old Testament*, 1134.

해 등장하는 “만국”이라는 단어가 그 근거이다. 하나님은 “만국의 왕”(ὁ βασιλεὺς τῶν ἐθνῶν)이다(3절). 또한 “만국”(πάντα τὰ ἔθνη)이 와서 그 앞에 경배한다(4절). 다시 말해, 계시록은 여기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모든 세계의 통치자이며, 그렇기 때문에 경배의 대상임을 밝힌다. 아모스서에서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주제, 즉 하나님은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의 지역신이 아니라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라는 점이 계시록 15:3-4에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 호칭을 통해 다시 한번 부각된다. 구약에 등장하는 열방의 예루살렘으로의 종말론적 순례 전승처럼, 세상 끝날에 ‘모든’ 만국이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된 통치자이심을 보게 될 것이다.⁶¹⁾

더 나아가, 아모스서의 문맥에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 호칭이 우상숭배에 대한 공격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계시록 15:3의 하나님 호칭을 다시 한번 우상숭배에 대한 경고의 암시로 읽어야 함을 시사한다. 15:2에 ‘우상’(τῆς εἰκόνης αὐτοῦ)이 언급되고, 우상숭배를 경고하는 표현인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τοὺς νικῶντας ἐκ τοῦ θηρίου καὶ ἐκ τῆς εἰκόνης αὐτοῦ καὶ ἐκ τοῦ ἀριθμοῦ τοῦ ὀνόματος αὐτοῦ)이라는 문구가 직접 등장한다는 점도 이 같은 해석을 뒷받침한다.⁶²⁾ 종말에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들은 우상숭배의 유혹을 뿌리치고, 아모스서의 권면대로 모든 것의 통치자이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들이다.

마. 계시록 16:7 (세 번째 대접 재앙)

이 본문은 셋째 대접 재앙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물을 차지한 천사(16:5)가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고 선언하고 나서, 제단이 다시 한

⁶¹⁾ Mounce, *Revelation*, 287.

⁶²⁾ cf. Jürgen Roloff, *Revelation*, (Minneapolis: Fortress, 1993), 183.

변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16:7)고 반복해 말하는 장면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운 이유는 6절에 접속사 *ὅτι*와 함께 제시된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로 ‘피’(16:4,6)를 마시게 하셨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복수법(*lex talionis*)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의 심판은 의롭다고 선언한다.⁶³⁾ 물의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의롭다고 선포하자(5절), 제단이 재차 이 선언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라고 호칭하고 있다(7절). 이 호칭이 아모스서에서 온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아모스서와 계시록 본문 사이의 문자적 유사성뿐만 아니라, 이 호칭이 하나님의 ‘심판’(*αἱ κρίσεις σου*)이라는 개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사용되기 때문이다.⁶⁴⁾ 아모스서의 ‘전능하신 주 하나님’ 호칭은 앞서 살핀 대로 아모스서의 여러 문맥에서 하나님을 그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다(암 3:13, 4:13, 5:16, 25-27; 9:5-6). 마찬가지로 우리가 분석하고 있는 계시록 16:7도 “심판하시는 것이 참드시고 의로우시도다”(ἀληθινὰ καὶ δίκαιαι αἱ κρίσεις σου)라고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전능하신 주 하나님’ 호칭을 밀접하게 관련짓고 있다. 아모스서와 마찬가지로 계시록에서도 ‘전능하신 주 하나님’은 온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통치대상을 심판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신다고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아모스서에서 나온 계시록의 하나님 호칭 사용과 관련해 더 의미심장한 부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대상과 관련이 있다. 6절에는 동사 *ἐξέχεαν*에 3인칭 복수형 어미로 표현된 ‘그들’ 그리고 ‘그들에게’(*αὐτοῖς*)라고 표현되어 있는 심판받는 대상이 아모스서와의 연관성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들” 혹은 “그들에게”라고 6절에

63) Roloff, *Revelation*, 189. Beale, *Revelation*, 818. Osborne, *Revelation*, 583.

64) Beale과 Carson의 주석은 16:7에서 구약배경을 발견해 내지 못한다. Beale,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Use of the Old Testament*, 1135.

지칭되는 자들은 직접적으로는 ‘피를 흘리는 자들’(αἷμα ἁγίων καὶ προφητῶν ἐξέχεαν)이므로 핍박자라고 볼 수 있다.⁶⁵⁾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 이들은 문맥상 2절에 언급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τοὺς ἀνθρώπους τοὺς ἔχοντας τὸ χάραγμα τοῦ θηρίου καὶ τοὺς προσκυνοῦντας τῇ εἰκόνι αὐτοῦ)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⁶⁶⁾ 그 이유는 6절에 “그들”이 갑작스럽게 등장하는데, 문맥상 이미 2절과 6절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또한 내용상으로도 2절에 언급된 사람들이 6절과 마찬가지로 심판을 받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6절의 핍박자들은 결국 로마황제 숭배의식(imperial cult)에 동조하는 우상숭배자들이다(16:2). 이렇게 되면, 계시록 16:7의 하나님 호칭과 아모스서와의 연관관계가 더 분명해진다. 우리가 살핀 대로, 아모스서에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 호칭은 우상숭배에 대한 공격을 포함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상들과 같은 지역신이 아니며,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며, 따라서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라고 아모스서는 극명하게 밝힌다.⁶⁷⁾ 이런 아모스서의 문맥이 계시록 16장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계시록 16:7은 아모스서의 하나님 호칭을 사용해 하나님만이 예배의 유일하고 배타적인 대상이며 이를 거부하며 우상숭배에 빠지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가지 못한다고 암묵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바. 계시록 19:6 (허다한 무리의 찬양)

이 장면은 요한이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으로 들은 내용을 묘사한다. 지금까지 분석한 대로, 요한계시록에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 호칭은 대부분 찬양의 문맥에서 사용되었는데, 19:6에서도 이 호칭이

⁶⁵⁾ cf. Beale, *Revelation*, 818. Osborne, *Revelation*, 584.

⁶⁶⁾ Roloff, *Revelation*, 189.

⁶⁷⁾ cf. Barstad, *The Religious Polemics of Amos*, 10.

비슷하게 찬양의 문맥에서 쓰이고 있다. 이 찬양의 문맥에서 사용되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 호칭은 아모스서의 하나님 호칭과 문자적으로 일치할 뿐 아니라, 주제적으로도 아모스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그 이유는 이 호칭이 정확하게 6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는 “통치하시도다”(ἐβασίλευσεν)라는 동사와 함께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함과 맞물려 있다. 우선,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소리(19:1)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큰 음녀를 심판하셨기 때문이다(19:2). 하나님의 통치가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일을 통해 온 세상에 드러났다. 또한, 하나님의 통치는 “허다한 무리”가 큰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결과를 만들어 낸다(19:6).

아모스서의 ‘전능하신 주 하나님’ 호칭 사용과 관련해 주목할 부분은 이 찬양을 하는 주체가 ‘허다한 무리’(ὄχλου πολλοῦ)라는 점이다(19:1,6). 이 ‘허다한 무리’는 언뜻보기에 계시록 7:9에 등장하는 ‘셀 수 없는 많은 무리’(ὄχλος πλῆθος)를 연상시킨다.⁶⁸⁾ 계시록 19:6에 언급된 ‘허다한 무리’를 성도들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근거는 19:5에 있다. 5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초청이 “하나님의 종들”(πάντες οἱ δοῦλοι αὐτοῦ)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다. 그리고 이 초청 바로 뒤에 이어지는 6절에서 “허다한 무리”(ὄχλου πολλοῦ)이 큰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따라서 6절의 ‘허다한 무리’를 5절에 언급된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자들’(πάντες οἱ δοῦλοι αὐτοῦ [καὶ] οἱ φοβούμενοι αὐτόν)로 보는 것은 문맥적으로 자연스럽다. 더군다나 허다한 무리가 내는 소리를 ‘많은 물소리’와 ‘큰 우렛소리’에 비유하고 있는데(19:6), 이 표현이 계시록 14:1-2에서 모든 성도를 상징하는 십사만 사천명을 묘

68) Boring, *Revelation*, 192.

사할 때 사용하는 내용과 똑같다. 따라서 19:6에 언급된 허다한 무리는 모든 성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렇다면 계시록 19:6에 사용된 아모스서의 하나님 호칭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더 분명해진다. 하나님은 어느 지역, 어느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허다한 무리’(ὄχλου πολλοῦ) 즉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셔야 하는 분이다. 이것이 아모스서가 ‘전능하신 주 하나님’ 호칭을 통해 전달하려는 의미이다.

결국, 계시록 19:6에 사용된 아모스서의 하나님 호칭은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통치자이며, 예배의 유일한 대상임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아모스서에서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 호칭이 우상숭배를 공격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초청의 권면과 함께 사용된다(암 5:8). 결국 계시록 19:6에 아모스서의 문맥이 그대로 들어와 있다고 볼 수 있다. 계시록은 뒤에 이어지는 장면 즉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는 동작과 이를 제지하는 천사의 대화(19:9-10)를 통해 하나님만이 유일한 경배의 대상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⁶⁹⁾

사. 계시록 21:22 (새 예루살렘 환상)

계시록에서 아모스서에서 온 하나님 호칭이 마지막으로 사용되는 본문이 21:22이다. 요한은 새 예루살렘의 상태를 묘사하는 대목에서 새 예루살렘에 성전이 따로 없다고 설명한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어린양이 새 예루살렘의 성전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요한은 덧붙인다. 새 예루살렘에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ὁ κύριος ὁ θεὸς ὁ παντοκράτωρ)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되신다고 설명하면서 이 본문은 아모스서의 하나님 호칭을 사용한다. 아모스서와 계시록 21:22 사이에 κύριος ὁ θεὸς ὁ παντοκράτωρ 어구의 문자적 유사성이 뚜렷하다. 또한, 주제의

⁶⁹⁾ Richard Bauckham, *The Climax of Prophecy: Studies on the Book of Revelation* (Edinburgh: T&T Clark, 1993), 136. Beale, *Revelation*, 946.

유사성도 보인다. 즉 아모스서의 하나님 호칭이 사용될 때 계시록의 반복된 패턴은 하나님의 온 세상 통치자되심 그리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섬김의 대상임을 나타내는 개념이 근접 문맥에서 등장하는 것이다. 계시록의 마지막 이 본문도 예외는 아니다. 하나님과 어린양이 성전이 된 이 새 예루살렘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닌다(24절). 또한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 성에 들어간다(24절). 그리고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 성 안으로 들어간다(26절). 계시록은 여기서 포괄적 용어인 ‘만국’(τὰ ἔθνη), ‘땅’의 왕들(οἱ βασιλεῖς τῆς γῆς), ‘만국’의 영광과 존귀(τὴν δόξαν καὶ τὴν τιμὴν τῶν ἐθνῶ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⁷⁰⁾ 이 용어들은 새 예루살렘이 특정 인종으로만 구성된 장소와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의 회개한 모든 사람으로 이루어진 포괄적 공동체이며 장소라고 강조한다.⁷¹⁾

덧붙여, 구약 선지서 특히 이사야 60장에 등장하는 열방의 예루살렘으로의 종말론적 순례 전승이 계 21:24-26에서 또 하나의 배경이 된다(사 60:3,5, 11 LXX).⁷²⁾ 이 전승은 종말에 선민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과 관련이 있다. 이런 배경으로 보면, ‘만국’과 ‘땅’의 왕들이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표현은 결국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며 경배한다는 의미이다. 무엇보다도 계시록 21:22에 사용된 ‘전능하신 주 하나님’ 호칭은 하나님만이 우주적 통치자이시며,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보여주어 황제숭배에 타협하지

⁷⁰⁾ cf. Ronald Herms, *An Apocalypse for the Church and for the World: The Narrative Function of Universal Language in the Book of Revelation*, BZNW 143. (Berlin: de Gruyter, 2006), 174. Herms는 계시록에서 ἔθνος 라는 단어가 문맥에 따라서 (1)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의미가 없이 단순히 중립적 의미의 인간 전체 (2) 민족을 초월해 이루어진 성도 공동체 (3) 부정적 의미로 사탄의 세력과 동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4) 종말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관찰했다.

⁷¹⁾ Beale, *Revelation*, 1097.

⁷²⁾ Mounce, *Revelation*, 396. Roloff, *Revelation*, 245. Beale, *Revelation*, 1094.

않도록 권면하는 기능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결론

계시록에 사용되고 있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κύριος ὁ θεὸς ὁ παντοκράτωρ) 호칭은 구약 아모스서(LXX)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호칭은 아모스서를 제외한 다른 칠십인역 구약 본문에는 1~2회 밖에 사용되지 않는 호칭이다. 또한, 아모스서 이외의 본문들에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 호칭의 특징은 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가리킬 때 사용된다는 점이다(삼하 7:25, 27, 대상 17:24, 호 12:6, 학 1:14).⁷³⁾ 반면에, 아모스서의 ‘전능하신 주 하나님’(κύριος ὁ θεὸς ὁ παντοκράτωρ) 호칭은 이스라엘 백성의 통치자뿐 아니라, 이방나라의 통치자, 그리고 자연세계와 온 우주의 통치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계시록에서 7번 나타나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 호칭은 아모스서(LXX)에서 10회나 사용되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 호칭과 문자적으로 동일한 형태이다. 그뿐 아니라, 계시록에서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의 호칭 앞 뒤 문맥에서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들 즉 ‘땅에 있는 모든 족속’(1:7 *πᾶσαι αἱ φυλαὶ τῆς γῆς*) ‘민족들’(11:18; 15:3,4; 21:24,26 *τὰ ἔθνη*), ‘허다한 무리’(19:6 *ὡς φωνὴν ὄχλου πολλοῦ*)등의 어구들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이 하나님 호칭은 통치(4:8-9 보좌, 11:16-17, 15:3 만국의 왕, 19:6 통치하시도다)와 심판(11:17-18, 16:7)의 주제도 등장하여, 아모스서의 ‘전능하신 주 하나님’ 호칭을 둘러싼 주제와 일치한다. 따라서 계시록은 구약에서 널리 사용되던 일반적인 하나님 호칭을 문맥과 관계없이 두리뭉실하게 사용한 것이

⁷³⁾ 하나의 예외는 나훔 3:5인데, 여기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으로 호칭이 사용되면서 하나님은 니느웨를 심판하시는 분, 즉 이방나라와 전쟁하시는 분으로 묘사된다.

아니라, 특별히 우상숭배에 대한 공격이라는 아모스서(LXX)의 문맥과 신학을 염두에 두고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모스서는 우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온 세상을 창조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므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찾으라(암 5:4,6,8)는 내용을 ‘전능하신 주 하나님’ 호칭에 응축하고 있다. 계시록은 아모스서의 이 하나님 호칭의 의미와 문맥을 계시록에 그대로 끌고 들어와, 하나님의 온 세상의 통치자 되심, 로마황제숭배라는 우상에 대한 공격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만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권면을 응축해서 정교하게 전달하고 있다.

▶ 접수일: 2020년 7월 22일 심사일: 7월 23일 게재확정일: 8월 31일

[참고문헌]

- 김경식, 『구약을 품은 신약 본문 해석』, 서울: 새물결플러스, 2020.
- 김추성, 요한계시록의 예배와 찬양: 계시록 4-5장을 중심으로, 『성경과 신학』 36(2004): 75-99
- _____,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 경기: 이레서원, 2015.
- _____, 『요한계시록 1-9장』, 서울: 킹덤북스, 2018.
- 도현석, “요한계시록의 하나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보좌 위에 앉으신 이’ 두 칭호의 상호 관계성,” 『신약논단』 23.2 (2016): 517 - 554.
- 유은걸, “요한계시록의 황제제의: 요한계시록 13장과 17장을 중심으로,” 『신약논단』 15.2 (2008): 469 - 503.
- 신동욱, “하나님 호칭을 통해 나타난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의 특징,” 『신약논단』 16.1 (2009): 269 - 305
- Allen, Garrick V. “Textual Pluriformity and Allusion in the Book of Revelation: the Text of Zechariah 4 in the Apocalypse,” ZNW 106. no 1 (2015): 136-145.
- Aune, David. *Revelation 1-5*. WBC 52A. Dallas: Word, 1997.
- Barstad, Hans M. *The Religious Polemics of Amos Studies in the Preaching of Am 2, 7B-8; 4,1-13; 5,1-27; 6,4-7; 8:14*. Leiden: Brill, 1984.
- Bauckham, Richard. *The Theology of The Book of Revel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 Bauckham, Richard. *The Climax of Prophecy: Studies on the Book of Revelation*. Edinburgh: T&T Clark, 1993.
- Beale, G. K. *The Book of Revelation*, NIGTC. Grand Rapids: Eerdmans, 1999.
- Beale, G. K. & D. A Carson,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Use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Baker, 2007
- Boring, M. Eugene. *Revelation*. Louisville: John Knox, 1989.
- Crenshaw, J. L. “YHWH Sebot Semo: A Form-Critical Analysis,”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81 no 2 (1969): 156-175
- Dumbrell, William J. *The Faith of Israel: Its Expression in the Books of the Old Testament*. Leister: Apollos, 1989.
- Glenny, Edward. *Finding Meaning in the Text: Translation Technique*

- and Theology in the Septuagint of Amos*. Leiden: Brill, 2009.
- _____. *Amos: A Commentary based on Amos in Codex Vaticanus*. Septuagint Commentary Series. Leiden: Brill, 2013.
- _____. *Hosea: A Commentary based on Hosea in Codex Vaticanus*. Leiden: Brill, 2013.
- Hermes, Ronald. *An Apocalypse for the Church and for the World: The Narrative Function of Universal Language in the Book of Revelation*, BZNW 143. Berlin: de Gruyter, 2006.
- Jauhainen, Marko. “Minor Prophets in the Book of Revelation” in *Minor Prophets in the New Testament*. London: T&T Clark, 2009.
- Koester, Craig R. *Revelation*. New He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4
- Matthewson, David L. *Verbal Aspect in the Book of Revelation: the Function of Greek Verb Tenses in John’s Apocalypse*. Leiden: Brill, 2010.
- Mays, James L. *Amos*, London: SCM, 1969.
- McComiskey, Thomas Edward. *The Minor Prophets: An Exegetical and Expository Commentary, Vol 1 Hosea, Joel and Amos*. Grand Rapids: Baker, 1992.
- Osborne, Grant. *Revelation*. BECNT. Grand Rapids: Baker, 2002.
- Petersma, Albert & Benjamin G. Wright, *A New English Translation of the Septuagi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 Roloff, Jürgen. *Revelation*. Minneapolis: Fortress, 1993.
- Schüssler Fiorenza, Elisabeth. *Revelation: Vision of a Just World*. Edinburgh: T&T Clark, 1991.
- Simundson, Daniel J. *Hosea Joel Amos Obadiah Jonah Micah: Minor Prophets*. Nashville: Abingdon, 2005.
- Stuart, Douglas. *Hosea-Jonah*. WBC 31. Waco: Word, 1987.
- VanGemeren, Willem A. 『예언서 연구』. 김의원 외 역. 서울: 엠마오, 1990.

〈Abstract〉

The OT background of ‘the Lord God Almighty’
in the Book of Revelation

Kyoung-Shik Kim

(Westminster Graduate School of Theology, Associate Professor)

This study looks into the Old Testament background of the title ‘the Lord God Almighty’(κύριος ὁ θεὸς ὁ παντοκράτωρ) that occurs 7 times in the Book of Revelation. Although the divine titles are used in many different forms in the OT, the title, ‘the Lord God Almighty’ in Revelation is closely based on the same divine title in the Book of Amos(LXX) in particular. This is because there is verbal similarity between God’s title in Amos(LXX) and that in Revelation and furthermore the title is employed 10 times in Amos(LXX) whereas it is used only once or twice in other OT books.

When the divine title ‘the Lord God Almighty’(κύριος ὁ θεὸς ὁ παντοκράτωρ) is used in the Book of Amos(LXX), it occurs with other themes such as God as creator, judge, ruler of all things and warning about idolatry. Significantly, the title is employed in similar context in John’s Revelation. It occurs with such phrases as ‘a great multitude,’ ‘nations’ and also with such themes as ‘God’s kingship’ and ‘judgment’. All these indicate that the use of the divine title from the Book of Amos in Revelation takes into and even evoke the broad context and themes in the Book of Amos to express exhortations in the Book of Revelation.

The Book of Revelation warns about Roman imperial cult as idolatry and encourages believers in Asia Minor to worship only God, by using the divine title from Amos(LXX). The use of the divine title ‘the Lord God Almighty’ from Amos shows that not Roman emperor but the one who sits on the throne is the only one who deserves worship as ‘the Lord God Almighty.’ This is mainly because God is creator, judge and true ruler of all nations, just as he is in the Book of Amos. The Book of Revelation makes such a warning and exhortations by using the divine title ‘the Lord God Almighty’(κύριος ὁ θεὸς ὁ παντοκράτωρ) and thus evoking the broad context and themes of the book of Amos(LXX).

Key words

The Use of Amos in Revelation, the Lord God Almighty, Warning about Idolatry, the divine title in Revelation, Respect for OT context in NT.